희생자의식 민족주의: 민족적 애도와 트랜스내셔널 윤리

임지현

1. 문제의 출발점

#개념적 시사: “세습적 희생자의식(hereditary victimhood)” Zygmunt Bauman
=> 1992년 이스라엘 사범대학의 여론조사: 80%의 학생들이 이스라엘인의 정체성을 ‘홀로코스트 생존자’와 동일시한다
=> Intifada와 젊은 이스라엘 군인들: 게토봉기 기념관 방문금지

#역사에서 기억으로: 1990년대 memory boom
=> Pierre Nora의 Realm of Memory (기억의 장)에 대한 포스트콜로니얼 어프로치는 어떨까?
=> ‘희생’의 기억: 민족주의적 역사서술, National History에 대한 대안이 아니라, 더 넓은 역사 문화적 맥락에서 민족주의적 역사서술을 정당화하고 민족주의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닌가?

Jan Błonski/ Jedwabne 역사논쟁: 1941년 7월 10일 나치 점령하의 폴란드 작은 마을 예드바브네에서 1600여명의 유대인이 학살된다. Jan Gross의 Neighbors
=> 나치가 아니라 폴란드 이웃들이 나치 학살의 주역: 2001년 4월의 여론조사: 48프로는 사과할 필요 없다. 30프로는 사과에 찬성. 80프로는 폴란드인으로서 도덕적 책임감 못느낀다. 13프로만이 도덕적 책임감을 느낀다.
=> 5/600만이 살해된다 (이중 유대계 시민이 3백만): 전체 인구의 20%, 법률가의 50%이상, 의사의 40%, 대학교수와 가톨릭 성직자의 3분의 1이 희생된다.
=> 현실사회주의 역사인식-누가 더 큰 희생자인가? : 강제수용소(concentration camp)와 절멸수용소(extermination camp)의 구분; 나치의 절멸정책의 목표는 폴란드인, 유대인은 강제 이주가 목표 cf. Szczesniak

영웅주의로부터 희생자의식으로 내셔널리즘 담론의 이동
=> the ethical turn in the Holocaust/genocide studies
=> 탈냉전의 맥락: 동서블록의 해체와 더불어 일본과 독일의 희생자의식이 강조되는 경향; 냉전 블록 내부의 단결이나 단합의 중요성 더 이상 절실하지 않다.

희생자 대 피해자: sacrifice versus victim, Opfer, ofiary,
=> ‘희생자’(giseisha)가 피해자(higaisha)보다 더 적합한가?
=> 내셔널리즘과 정치 종교, 세속 종교의 문제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

2. Practicing Transnational History

Nationalism is not national, but transnational: 민족주의적 상상력은 트랜스내셔널한 공간에서만 가능. 왜냐하면 타자와의 비교를 통해서만 '자기 민족 고유'의 문화와 특성을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...

민족주의의 적대적 공범관계: 동아시아-키미가요/히노마루를 반대하는 웹사이트/독일의 피추방자 연합(VdV)

=> 이웃나라의 민족주의가 자국의 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정당화시킨다

가해자가 없는 피해자/희생자는 없다: 희생자의식 민족주의도 항상 가해자인 상대편을 필요로 한다

내셔널리즘에 대한 연구는 national history의 틀을 벗어나 transnational history, histoire croisee, entangled history의 접근방식을 요구

3. 집합적 유죄(collective guilt) 대 집합적 무죄(collective innocence)

Hannah Arendt의 collective guilt (Eichmann in Jerusalem)

=> 구체적인 개개인이 아니라 추상적 범주로서의 일본인, 한국인, 독일인, 유대인

=> "너는 독일인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이고, 나는 유대인, 폴란드인,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죄"라는 논리: 본인이 행한 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느 민족에 속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역사적 책임을 묻는다

=> national belonging의 논리: 나치의 유대인 학살과 같은 논리=> 너는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어야 마땅하다는...=> 민족적 귀속감을 강화시킨다.

민족을 기준으로 하는 범주적 사고

=> 20세기의 모든 제노사이드는 '범주적 살인' (categorical killing)이다: 홀로코스트, 인종청소, 르완다의 후투-투치,

=> 나치와 시온주의의 공통목표: 'Judenfrei'

4. 변신의 마술: 개개인 가해자(individual victimizer)가 집합적 희생자(collective victim)으로

=> Laudański 형제: 예드바브네의 학살자들/전후 피소되어 실형을 산다.

"victims of fascism, of capitalism, of the Sanacja regime" "Like the whole nation we suffered under the Germans, the Soviets, and the People's Republic of Poland."

=> 개개인 가해자들이 민족적 희생자의식이라는 기억의 벽 뒤에 숨어 자신을 희생자로 규정한다: 한국 진실과 화해를 위한 대통령 위원회의 보고서=> 동경재판의 한국인 전범들을 '무고한 희생자'로 규정.

=> 전후 한국의 가부장주의와 위안부/ 익찬체제의 공범자와 희생자 사이에서 방황하는 일본 페미니즘/ 나치즘 치하 독일 여성들-Gisela Bok-Claudia Koonz 논쟁

cf) 대중독재 논쟁

5. 기억의 신성화(Sacralization of memories)=> “우리만의 고유한 과거는 결코 외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”; 바르샤바의 한국인, 서울의 미국인...
=> 홀로코스트의 uniqueness 담론: Elie Wiesel, 홀로코스트를 겪은 유대인들만이 홀로코스트를 이해할 수 있다. cf) 워싱턴 D.C.의 홀로코스트 박물관: 1100만과 600만
=> 특수성과 유일성을 강조함으로써, 홀로코스트 등 인류의 비극을 보편적인 맥락 속에 놓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민족 고유의 역사적 자산으로 전유
=> 비교사 혹은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의 맥락에서 희생자의식 민족주의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고 민족의 기억으로만 전승한다

6. 과잉맥락화(overcontextualization)과 탈맥락화(de-contextualization)
=> 귄터 그라스의 <게걸음으로 가기(Im Krebsgang)>와 요코 카와시마 왓킨스의 <So Far Away from the Bamboo Grove> : Grass, Wilhelm Gustloff/나치의 노동자 레저 프로젝트/동프로이센-주데텐 독일인들의 나치지지 성향 vs. Yoko, 만주와 한반도 북부 일본인 이주의 역사적 배경 삭제/ 한반도 빨치산/ 전후 보복의 역사적 맥락
=> 미국 독서계 혹은 지식인들의 동아시아사에 대한 무지: 보스톤의 홀로코스트 메모리얼/ 리틀 도쿄의 전시-일본계 미국인의 강제수용소/
=> # 홀로코스트 담론의 cultural transfer:
Erika Steinbach, Joerg Friedrich, 60년대 일본의 nationalists...
=> 번제(홀로코스트), 강제수용소(Konzentrationslager), 시체소각장(crematoria), 유대인 학살 특수부대(Einsatzgruppe), 절멸전쟁(Vernichtungskrieg) 등의 용어를 Vertreibung, hikiage, 연합국 폭격, 원폭, 등등에 사용

7. 역사의 행위자(agency) 대 수동적 희생자
=> SCAP의 Orientalism: 일본인은 무조건 권력에 수동적으로 복종한다?
=> 독일인과 오스트리아인이 서로 히틀러의 첫 번째 희생자 자리를 놓고 싸운다
=> 대중독재 논쟁

8. '원거리 내셔널리즘'과 '디아스포라 내셔널리즘'
=> PAAHE (Parents for Accurate Asian History Education), Chinese Ameircians: Iris Chang